
II

지급결제 동향 및 결제리스크 관리

1. 거액결제시스템	41
2. 소액결제시스템	46
3. 외환동시결제시스템	48
4. 증권결제시스템	50

1. 거액결제시스템

- 결제 동향
-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 지원
- 결제리스크 관리

결제 동향

(원화자금)

금융기관 간 최종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은 금융망의 2022년 중 일평균 원화자금 결제금액은 증권거래자금 결제를 중심으로 전년보다 7.3% 증가한 524.3조 원을 기록했다.¹⁾

표 II-1. 자금종류별 한은금융망 결제규모(일평균)

	2020	2021	2022	증감률
원화자금 합계	423.6	488.5	524.3	7.3
참가기관 간	405.0	465.4	497.3	6.9
콜거래자금	21.6	20.6	23.1	11.9
증권거래자금	236.1	257.4	269.9	4.9
외환거래자금 ¹⁾	14.8	14.5	16.8	16.3
고객거래자금 ²⁾	63.2	73.6	79.5	8.0
차액결제자금 ³⁾	22.5	25.9	27.5	6.1
기타	46.9	73.4	80.6	9.7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⁴⁾	18.5	23.1	27.1	17.0
외화거래자금 합계 (십억 달러) ⁵⁾	1.0	1.1	1.6	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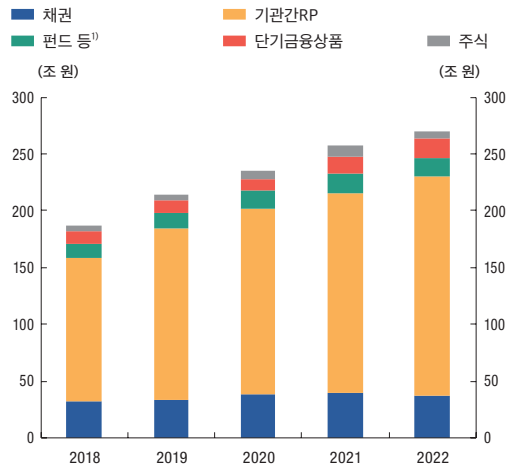
- 주: 1) 외환거래에 따른 원화자금이체 결제금액
 2) 일반 개인이나 기업이 한은금융망을 이용해 수취인에게 송금하는 금액의 자금, 연계결제 포함
 3) 소액결제에 따른 참가기관 간 채권·채무의 차액결제
 4) 국공채 거래, 국고금 수급, 한국은행 대출 등. 자세한 내용은 <참고 II-1>을 참조하기 바란다.
 5) 예치 및 인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 1) 2022년 중 한은금융망의 결제 건수는 일평균 23,290건으로 전년(22,206건)에 비해 4.9% 증가했다.
- 2) 증권대금동시결제(DvP)와 분리결제 및 채권원리금 상환 등의 부수 거래도 포함된다. 은행채, 지방채, 회사채 등의 채권 원리금 상환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채권 원리금 상환 영수증을 어음교환에 회부해 만기일에 원리금을 일괄 수령하고 동 자금을 한은금융망 및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해 개별 투자자 앞 송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 3) 외환거래에 따른 원화자금이체가 한은금융망을 통해 처리된 것을 말한다. CLS시스템은 CLS은행과 각국 중앙은행의 전산시스템을 상호 연결해 매도통화 지급과 매입통화 수취를 국가 간 시차 없이 동시에 처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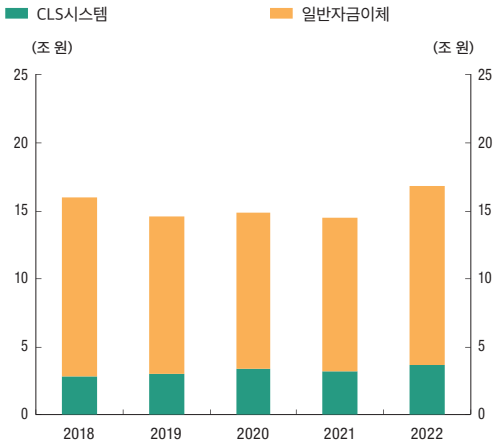
자금 종류별로 보면 콜거래자금 결제금액은 전년 대비 11.9% 증가했다. 증권거래자금²⁾ 결제금액은 주식 및 채권거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관간RP 결제규모의 큰 폭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그림 II-1. 한은금융망 증권거래자금 결제규모(일평균)



주: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증권권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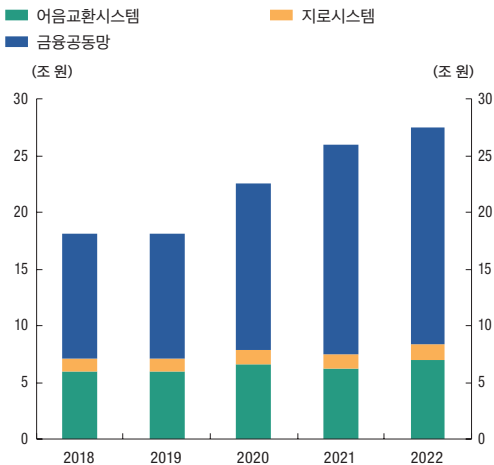
외환거래에 따른 원화자금³⁾ 결제금액은 수출입 규모 증가,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외환거래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6.3% 증가했다.

그림 II-2. 한은금융망 외화거래자금¹⁾ 결제규모(일평균)

주: 1) CLS는 차액 기준, 일반자금이체는 총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간 차액결제금액은 인터넷뱅킹 등 금융공동망⁴⁾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6.1% 증가한 27.5조 원을 기록했다.

그림 II-3. 한은금융망 차액결제규모(일평균)



자료: 한국은행

4) 금융공동망은 전자금융공동망, 타행환공동망, CD공동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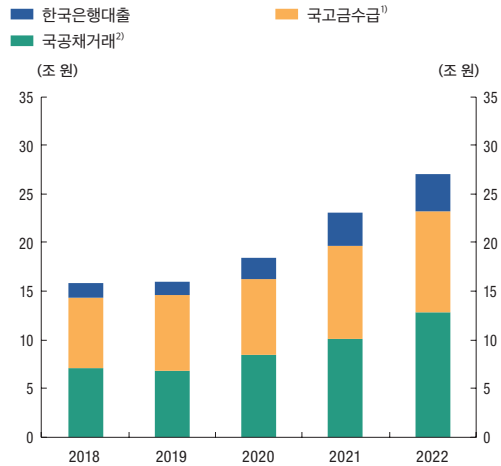
5) 2022년 말 국고채 발행잔액은 937.5조 원으로 전년 말(843.7조 원) 대비 11.1% 증가했다.

6) 2022년 중 국세수입은 소득세, 법인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344.1조 원) 대비 15.1% 증가한 395.9조 원을 기록했다.

7) 2022년 말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109.8억달러로 전년 말(972.7억 달러) 대비 14.1% 증가했다.

한편, 국공채 거래, 국고금 수급, 한국은행 대출 등에 수반되는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결제금액은 일평균 27.1조 원으로 전년대비 17.0% 증가했다. 이는 국고채 발행규모 확대⁵⁾ 및 국세수입 증가⁶⁾ 등에 따른 것이다.

그림 II-4.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결제규모(일평균)



주: 1) 한은금융망을 통해 처리되는 거래(여유자금 운용 및 회수, 국제 수납 등)만 포함

2)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발행·상환, 환매조건부 국공채 매매(환매 포함)
 자료: 한국은행

(외화거래자금)

한국은행은 외화표시 지급준비금 적립 등을 위해 한국은행에 개설된 외화예수금 계정을 통해 외국환은행의 미 달러화, 엔화 등 외화자금을 이체, 예치, 인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2년 중 일평균 외화거래자금 결제금액(예치 및 인출 포함)은 일평균 거주자 외화예금 증가⁷⁾ 등에 따라 16.4억 달러로 전년대비 45.1% 증가했다.

표 II-2. 한은금융망 외화거래자금 결제규모(일평균)

(백만 달러, %)

	2019	2020	2021	2022	증감률
이체	0.2	0.1	0.2	0.2	-11.9
예치	333.0	510.5	568.4	823.7	44.9
인출	343.2	491.1	559.5	812.8	45.3
합계	676.3	1,001.7	1,128.1	1,636.6	45.1

자료: 한국은행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 지원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결제유동성 관리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중당좌대출 및 일중RP 제도를 통해 일중의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 중 일중 일시 결제유동성 공급규모는 일평균 3조 247억 원으로 전년대비 13.4% 감소했다.

표 II-3. 일중 일시결제유동성 공급규모(일평균)

(십억 원, %)

	2020	2021	2022	증감률
일중당좌대출 ¹⁾	603.0	633.2	881.1	39.1
일중RP	2,883.2	2,858.9	2,143.6	-25.0
합계	3,486.2	3,492.1	3,024.7	-13.4

주: 1) 일중당좌대출 이용금액에서 당좌예금 잔액을 차감한 순일중당좌대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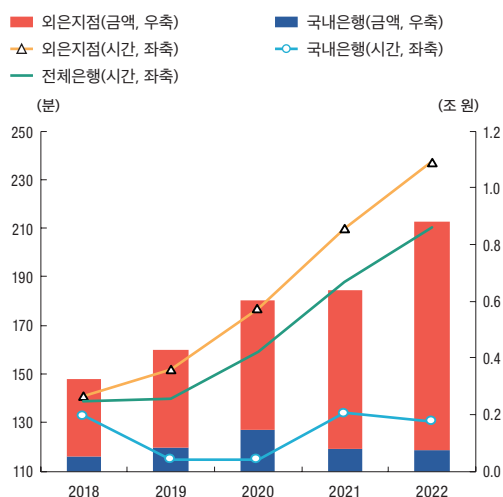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일중당좌대출)

일중당좌대출제도는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중 금융기관 간 자금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은행에 대해 대출 방식으로 일중의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2년 중 참가은행의 일중당좌대출 이용금액은 일부 외은지점의 단기금융상품 취급 확대에 따른 일중의 결제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39.1% 증가한 8,811억 원을 기록했다. 은행 그

룹별로 보면 국내은행은 760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반면 외은지점은 8,05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44.5% 증가했다.

일중당좌대출 이용시간은 전년대비 22분 확대된 일평균 210분을 기록했다. 은행 그룹별로는 국내은행의 이용시간이 130분으로 전년대비 5분 줄어들었으나, 외은지점은 237분으로 전년에 비해 27분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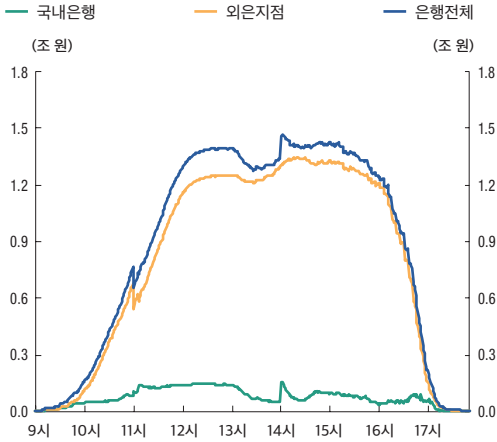
그림 II-5. 일중당좌대출 이용 규모¹⁾ 및 시간²⁾(일평균)

주: 1) 일중당좌대출 이용금액에서 당좌예금 잔액을 차감한 순일중당좌대출 기준

2) 참가기관별 자금 공급시간의 합계 기준(예: 참가기관이 일중당좌대출을 11~12시, 14~15시에 이용한 경우 120분)

자료: 한국은행

일중당좌대출 잔액은 외은지점을 중심으로 오전 시간대에 빠르게 증가한 뒤 16시 무렵부터 급격히 감소했다. 일중 최고치(1조 4,634억 원)는 외은지점의 일중당좌대출 이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1조 1,397억 원)에 비해 28.4% 증가했다.

그림 II-6. 일중당좌대출 잔액¹⁾(일평균)

주: 1) 일중당좌대출 이용금액에서 당좌예금 잔액을 차감한 순일중당좌대출의 분당 잔액

자료: 한국은행

(일중RP)

일중RP제도는 한은금융망을 통해 처리되는 참가기관 간 자금결제를 조기화하고 마감시간대 결제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회사에게 RP방식으로 일중의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2년 중 일평균 일중RP 공급규모는 일중RP 대상거래⁸⁾인 장내·외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25.0% 감소한 일평균 2조 1,436억 원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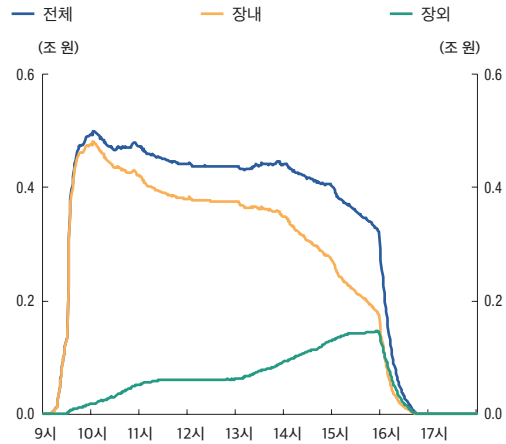
표 II-4. 일중RP 방식 결제유동성 공급규모(일평균)

(십억 원, %)

	2021			2022			증감률
	장내	장외	계	장내	장외	계	
한국거래소	1,910.9	-	1,910.9	1,520.7	-	1,520.7	-20.4
금융투자회사	460.6	487.5	948.0	285.5	337.4	622.9	-34.3
합계	2,371.5	487.5	2,858.9	1,806.2	337.4	2,143.6	-25.0

자료: 한국은행

일중RP 공급잔액은 오전 중 결제가 절반 이상 완료되는 장내 채권시장의 영향으로 예년과 같이 10시경까지 급격히 증가한 후 13시부터는 장외 채권거래 결제를 위한 일중RP 사용이 꾸준히 늘어나다 일중RP 공급 마감시각(16:00) 이후 빠르게 감소해 일중 잔액 상환되었다. 한편, 일중RP 공급잔액은 오전 10시 2분에 최고치(5,012억 원)를 기록했다.

그림 II-7. 일중RP 잔액¹⁾(일평균)

주: 1) 분당 순공급액(일중 누적공급액-누적상환액)

자료: 한국은행

결제리스크 관리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확보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대기비율⁹⁾ 및 일중당좌대출 최소소진율¹⁰⁾을 통해 볼 때 한은금융망은 안정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기비율과 일중당좌대출 최소소진율은 각각 4.1%, 23.0%로 전년(각각 3.7%, 20.3%)대비 소폭 상승했다.

8) 일중RP 대상거래는 금융투자회사가 장내 국채시장 및 장외 채권시장에서 국채, 정부보증채 및 통화안정증권을 단순매매한 거래이다.

표 II-5. 대기비율 및 일종당좌대출 최대소진율 추이
(금액 기준)

	2018	2019	2020	2021	2022
대기비율 ¹⁾	3.8	4.1	3.3	3.7	4.1
일종당좌대출 최대소진율 ²⁾	20.4	21.3	23.5	20.3	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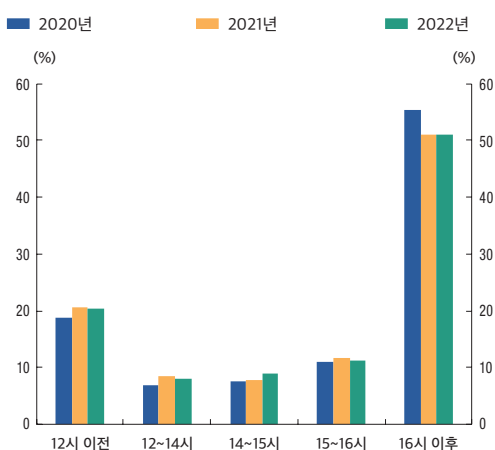
주: 1) 전체 대기금액/총결제금액(결제유동성 절감을 위해 다자 간 동시처리 되는 거래 제외)

2) 참가기관들의 일별 일종 순당좌대출 최고사용액/일종당좌대출 한도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한편, 한은금융망 마감시간대인 16시 이후의 결제집중률(금액 기준)은 2022년 중 51.2%로 전년과 동일했다.

그림 II-8. 한은금융망 시간대별 결제집중률¹⁾(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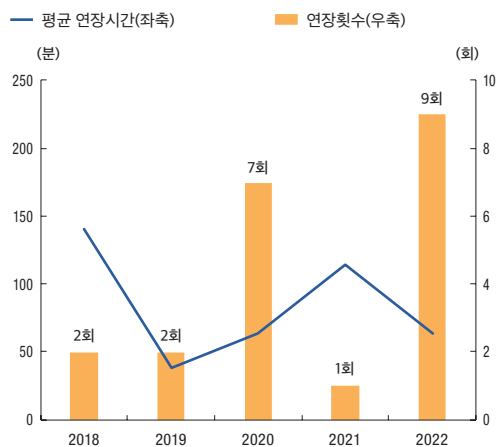
주: 1) 각 시간대별 결제금액/총 결제금액

자료: 한국은행

한은금융망의 마감시간이 연장된 경우는 연중 9회로 전년(1회)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연장 사유별로 보면, 참가기관의 전산장애가 2회, 참가

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이 2회,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 관련 업무처리가 5회였다. 전산장애 및 유동성 부족으로 한은금융망 연장을 초래한 참가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의환기 조치를 통보했다. 아울러 전산장애가 발생한 참가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업무재개를 위한 업무지속계획(BCP) 정비, 담당직원 교육 강화,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결제 지연이 발생한 참가기관에 대해서는 결제유동성 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그림 II-9.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횟수 및 평균 연장 시간



자료: 한국은행

9) 한은금융망은 참가기관의 당좌예금잔액이 부족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자금이체 신청을 대기파일에 수록했다가 다른 참가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수취 등으로 당좌예금잔액이 충분해지면 처리한다. 대기비율은 한은금융망 결제금액 중 참가기관의 당좌예금잔액 부족으로 자금이체 신청이 대기되었다가 결제된 금액의 비중을 의미한다.

10) 일종당좌대출 한도 대비 최고사용액의 비율을 말한다. 일종당좌대출은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대출적격담보를 납입한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의 당좌예금계좌에 예치된 금액을 초과한 지급 또는 결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출이 자동 실행되고 있다.

2. 소액결제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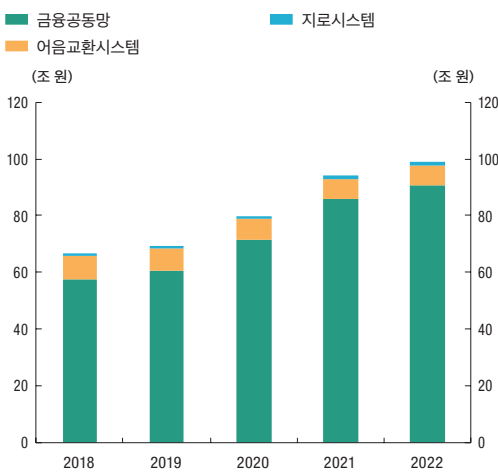
- 결제 동향

- 결제리스크 관리

결제 동향

2022년 중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¹¹⁾는 일평균 3,623만 건, 99.3조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1.1%, 5.2% 증가했다. 이는 금융공동망 결제규모가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

그림 II-10.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일평균)



자료: 한국은행

금융공동망을 통한 자금이체 규모는 일평균 3,197만 건, 90.8조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2.9%, 5.3% 증가했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펌뱅킹의 이용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한 자금이체가 큰 폭의 증가

세를 지속했다. 특히 오픈뱅킹공동망을 통한 자금이체가 전년에 이어 대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II-6. 금융공동망·어음교환시스템·지로스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일평균)

(천 건, 십억 원,%)

	2020	2021	2022	증감률	
건수	금융공동망	23,485	28,319	31,971	12.9
	(전자금융공동망)	16,114	19,041	21,333	12.0
	(타행환공동망)	273	254	238	-6.4
	(오픈뱅킹공동망)	1,966	3,908	5,234	33.9
	(CD공동망)	1,226	1,064	967	-9.1
	어음교환시스템	200	175	154	-11.7
	(자기앞수표)	195	170	150	-11.9
	(어음 등 ¹⁾)	4	4	3	-10.8
	지로스시스템	4,193	4,120	4,104	-0.4
	(일반이체)	727	659	601	-8.8
	(자동이체)	3,094	3,073	3,093	0.7
	(대량지급)	328	354	380	7.4
	합계	27,878	32,614	36,230	11.1
	금액	금융공동망	71,906	86,201	90,765
(전자금융공동망)		65,261	78,757	83,473	6.0
(타행환공동망)		5,191	5,504	4,885	-11.3
(오픈뱅킹공동망)		310	853	1,364	59.9
(CD공동망)		722	655	584	-10.9
어음교환시스템		7,254	7,039	7,340	4.3
(자기앞수표)		1,043	916	961	4.9
(어음 등 ¹⁾)		3,442	3,437	3,678	7.0
지로스시스템		1,042	1,098	1,174	6.9
(일반이체)		392	408	427	4.6
(자동이체)		383	396	427	7.7
(대량지급)		257	286	314	9.7
합계		80,201	94,338	99,279	5.2

주: 1) 약속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 환어음 포함

자료: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시스템을 통한 교환규모를 보면, 건수는 일평균 15만 건으로 전년대비 11.7% 감소했으나 금액은 7.3조 원으로 전년대비 4.3% 증가했다. 자기앞수표, 어음 등의 교환건수는 5만원권 지폐, 전자방식 지급수단 등으로 대체되며 감소했다.

11) 금융공동망 및 지로스시스템의 경우 자금이체 규모를, 어음교환시스템의 경우 교환규모를 각각 의미한다.

지로서스템을 통한 자금이체 규모를 보면, 건수는 일평균 410만 건으로 전년대비 0.4% 감소했으나 금액은 1.2조 원으로 전년대비 6.9% 증가했다.

결제리스크 관리¹²⁾

소액결제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고객 간 자금이체는 일중에 거래 건수가 매우 많고 건당 금액이 적은 특성을 고려해 금융기관 간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한 후 차액만을 한은금융망에서 최종 결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해 참가기관으로 하여금 순이체한도를 설정해 관리토록 하고 있다. 참가기관들의 총 순이체한도 규모는 2022년 말 76.4조 원으로 전년 말 대비 11.2% 증가했다.

표 II-7. 순이체한도 설정 현황

(기말 기준, 조 원, %)

	2020	2021	2022	증감률
직접참가기관	50.7	64.2	71.7	11.6
위탁기관	4.2	4.4	4.7	5.0
금융투자회사	2.0	2.1	2.1	1.1
기타 ¹⁾	2.2	2.3	2.5	8.6
합계	54.9	68.7	76.4	11.2

주: 1) 새마을금고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및 농협중앙회

자료: 한국은행

2022년 중 참가기관의 일평균 순이체한도 소진율은 15.9%로 전년(18.3%)에 비해 소폭 하락했

다. 순이체한도 소진율이 주의 수준(70%)을 상회한 횟수는 공모주 청약¹³⁾ 및 환불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자금이체¹⁴⁾ 등의 영향을 받았던 전년(171회)보다 크게 감소한 80회를 기록했다.

표 II-8. 순이체한도¹⁾ 소진율 현황(일평균)

(%, 회)

	2018	2019	2020	2021	2022
순이체한도 소진율 ²⁾	18.6	17.2	17.6	18.3	15.9
순이체한도 소진율 주의수준 상회횟수	87	83	109	171	80

주: 1)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이 발생시킬 수 있는 순이체(타행에 송신한 지급지시 누계금액-타행으로부터 수신한 지급지시 누계금액)의 한도

2) 참가기관들의 일별 순이체한도 소진율의 평균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편, 참가기관은 차액결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순이체한도의 일정비율(담보제공비율) 만큼의 증권을 담보로 한국은행에 제공해야 한다. 2022년 말 현재 담보인정금액은 참가기관의 순이체한도 설정규모 증가 및 담보제공비율 인상(50% → 70%)¹⁵⁾ 등으로 전년 말(38.1조 원)보다 19.5조 원 증가한 57.6조 원을 기록했다.

12) 소액결제시스템의 결제리스크 관리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충 설명 3> '한국은행의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운영 현황'을 참조하기 바란다.

13) 2022년 중 국내 기업공개(IPO) 공모금액은 15.6조 원으로 전년(19.7조 원) 대비 20.7% 감소했다.

14) 2021년에는 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공모주 청약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고객자금이체 규모도 컸다. 공모주 청약 시 고객들이 청약 주관기관에 증거금을 납입하는 과정, 주관기관이 동 자금을 단기운용하는 과정, 청약 후 주관기관이 증거금을 고객에게 환불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고객자금이체가 발생한다.

15) 한국은행은 2022년 2월 1일 담보제공비율을 기존의 50%에서 70%로 인상했다.

3. 외환동시결제시스템

- 결제 동향
- 결제리스크 관리

결제 동향

외환결제는 CLS시스템¹⁶⁾, 은행 간 환거래 네트워크, 국내 외화자금이체시스템¹⁷⁾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 2022년 중 CLS시스템을 통한 일평균 외환동시결제금액¹⁸⁾은 수출입 규모 증가,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외환거래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4.9% 증가한 865억 달러를 기록했다.

표 II-9. CLS시스템 결제규모¹⁾(일평균)

2019	2020	2021	2022	증감률
74.3	72.4	75.3	86.5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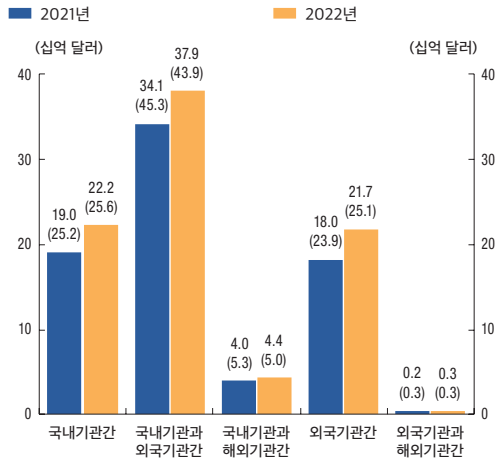
(십억 달러, %)

주: 1) 현물환·선물환·외환스왑거래 관련 금융기관 보고액 합계 (다자간차감 전 총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CLS시스템 결제규모를 결제주체별¹⁹⁾로 보면 국내기관과 외국기관 간 결제가 전체의 4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국내기관 간

결제가 25.6%, 외국기관 간 결제가 25.1%를 차지했다.

그림 II-11. 결제주체별 CLS시스템 결제규모¹²⁾(일평균)



주: 1) 현물환·선물환·외환스왑거래 관련 금융기관 보고액 합계 기준
 2) () 내는 비중
 자료: 한국은행

2022년 말 현재 22개국 3만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CLS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48개 금융기관(국내은행 17개, 국내 금융투자회사 11개, 외은지점 19개, 외국 금융투자회사지점 1개)이 참가하고 있다. 2022년 중 2개의 국내 금융투자회사(한화투자증권, IBK투자증권)가 CLS시스템에 신규 참가했다.

16) 외환결제리스크의 근본적 발생 원인이 되는 국가 간 시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통결제시간대(중부유통시간 기준 07:00~12:00)를 설정하고 동 시간대에 집중해 결제를 처리하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으로 CLS은행이 운영하고 있다.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는 각 통화별로 중앙은행에 개설된 결제회원은행과 CLS은행 계좌 간 실제 자금이체(자금 납입 및 지급)가 연속적으로(continuous) 연계(linked)되어 결제(settlement)됨을 의미한다. 현재 미 달러화, 유로화, 엔화, 원화 등 18개 CLS 결제통화의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한은금융망 포함)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17) 미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통화별로 외화예수금 계좌를 개설해 놓은 국내 운영기관(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을 통해 다수의 은행이 외화자금이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국내 동일시간대에 자금이체가 가능하다. 한편 위안화에 대한 국내 외화자금이체시스템은 국내 위안화 청산은행(교통은행 서울지점)이 2014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18) 본 보고서에서는 외환결제 중 결제규모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CLS시스템을 통한 외환동시결제에 중점을 두었다.

19) 국내기관(국내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 외국기관(국내 소재 외은지점 및 외국금융투자회사 지점) 및 해외기관(해외 소재 외국은행 및 외국금융투자회사)으로 구분했다.

표 II-10. CLS시스템 참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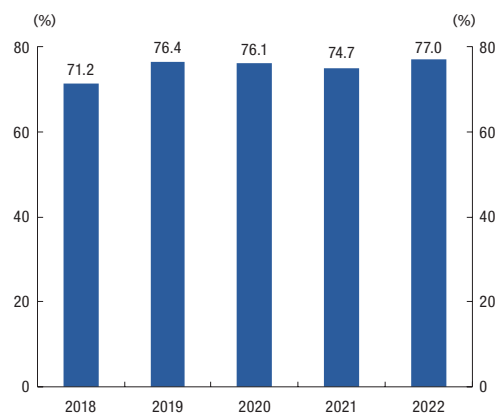
(2022년 말 현재)

결제 주체	참가기관
국내 기관	은행 (17) 국민, 농협, 광주, 대구, 하나, 수협, 수출입, 부산, 전북, 경남, 산업, 기업, 우리, 신한, 제주, SC제일, 한국씨티
	금융 투자 회사 (11)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KB증권, 하나증권,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 IBK투자증권
외국 기관 지점	은행 (19) HSBC, BOA, BNP파리바, SMBC, ING, 모건스탠리, 크레디아그리콜, JP모건체이스, 앰유에프지, 크레디트스위스, 도이치, DBS, 뉴욕멜론, 스테이트스트리트, 소시에테제네럴, 대화, 중국, 미즈호, ANZ
	금융 투자 회사 (1) 노무라금융투자

자료: 한국은행

결제리스크 관리

외환동시결제 규모가 증가할수록 매입통화와 매도통화 간 결제 시점 불일치로 인한 외환결제 리스크가 낮아지는데, 2022년 중 외환동시결제 비중(77.0%)은 전년에 비해 2.3%포인트 상승했다.

그림 II-12. CLS시스템을 통한 외환동시결제 비중¹⁾²⁾(일평균)

주: 1) CLS결제대상 외환거래 중 CLS시스템을 통해 결제된 비중

2)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 거래분

자료: 한국은행

20) 결제유동성 절감비율(%) = [1 - (실제납입액/총액기준 납입금액)] × 100 = (유동성절감액/총액기준 납입금액) × 100

4. 증권결제시스템

- 결제 동향

- 결제리스크 관리

결제 동향

2022년 중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결제된 증권거래자금 결제규모는 일평균 236.8조 원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했다. 일평균 장내거래 결제규모는 주식 및 채권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9.8% 감소한 2.9조 원을 기록했다.

표 II-11. 증권거래자금 결제규모(일평균)

(십억 원, %)

구분	2020	2021	2022	증감률	
장내결제	주식	758	945	682	-27.8
	채권 ¹⁾	2,413	2,568	2,097	-18.3
	파생금융상품	195	135	148	9.4
	소계	3,366	3,648	2,928	-19.8
장외결제	주식 ²⁾	915	1,108	830	-25.1
	채권 ³⁾	12,399	12,120	9,837	-18.8
	기관간RP	169,422	180,953	198,072	9.5
	단기금융상품 ⁴⁾	9,964	13,338	14,633	9.7
	펀드 등 ⁵⁾	8,961	10,424	10,382	-0.4
	파생금융상품 ⁶⁾	66	65	145	123.3
	소계	201,727	218,008	233,900	7.3
합계	205,093	221,656	236,827	6.8	

주: 1) 국채(RP 포함) 및 일반채권 결제

2) 금융투자회사와 기관투자자 간 결제

3) 연쇄결제* 차감 후의 최종 결제

4) CD, CP, 전자단기사채의 연쇄결제 차감 후의 최종 결제

5) 집합투자증권의 설정 및 환매 대금

6) 한국거래소 청산 적격 IRS 결제금액

* 동일 종목을 매수·매도하는 참가자들이 서로 연쇄적으로 거래함으로써

여러 건의 결제가 일방향의 단일 건으로 처리되는 결제방식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반면 일평균 장외거래 결제규모는 주식 및 채권거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관간RP 결제규모의 큰 폭 증가(+9.5%)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7.3% 증가한 233.9조 원을 기록했다. 기관간RP 결제규모는 금융투자회사의 단기자금조달 규모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결제리스크 관리

증권과 대금이 정해진 시간에 지급되지 않거나 동시에 교환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을 의미하는 증권결제시스템의 결제리스크는 2022년 중 대체로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장내주식, 장내국채 및 장외 주식기관투자자 거래는 모두 기준시한(각각 16:00, 17:00, 16:50) 이전에 결제가 완료되었다.

표 II-12. 기준시한 이후 증권결제 건수

(건)

구분	결제 시한 ¹⁾	기준 시한 ²⁾	2020	2021	2022
장내주식	16:00	16:00	0	0	0
장내국채	16:00	17:00	0	2	0
장외 주식기관 투자자	16:50	16:50	0	2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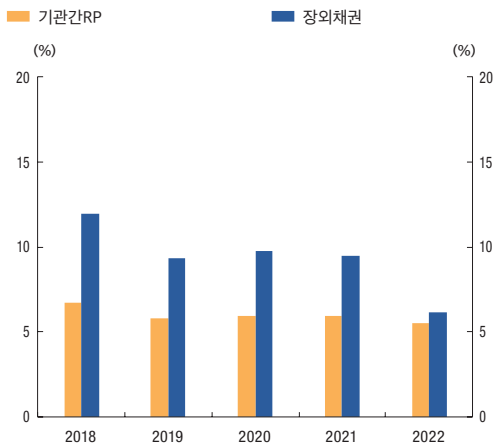
주: 1) 시스템 운영 규정상의 납부시점

2) 결제지연손해금 부과 기준시점

자료: 한국은행

기관간RP 및 장외 채권 거래의 경우 증권동시 결제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분리결제²¹⁾ 비중이 각각 5.5%, 6.2%로 전년대비 각각 0.4%포인트, 3.3%포인트 하락하는 등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그림 II-13. 장외시장 증권분리결제 비중¹⁾²⁾



주: 1) 전체 결제금액 중 한은금융망(증권대금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결제금액의 비중

2) 장외채권의 경우 채권, CD, CP, 전자단기사채를 포함(연쇄결제* 차감 후 기준)

* 동일 종목을 매수·매도하는 참가자들이 서로 연쇄적으로 거래함으로써 여러건의 결제가 일방향의 단일건으로 처리되는 결제방식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21) 분리결제는 증권결제 시 대금지급이 수반되지 않은 증권의 인도를 말하는 것으로, 증권대금동시결제와 달리 증권인도와 대금지급 간에 시차가 발생하므로 결제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

참고 II-1.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거래

국고금 수급

한국은행은 정부의 은행으로서 국고금의 수급을 관리하고 정부에 신용을 공여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국고금의 출납기관으로서 세금 등 국고금을 정부예금으로 수납했다가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지급하며, 재정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출해 주기도 한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국고업무 위해 2003년부터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¹⁾,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한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2022년 중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통한 처리 규모는 일평균 48.2만 건 및 25.4조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8.7%, 16.3% 증가했다.

국고전산망 처리 규모(일평균)

(천 건, 조 원, %)

		2021	2022	증감률
건수	실시간 전자이체	48.2	43.4	-9.9
	파일 송수신 (국고금 수납)	395.3	438.5	10.9
	(국세 환급)	327.2	364.1	11.3
		68.2	74.4	9.1
	합계	443.5	481.9	8.7
금액	실시간 전자이체	19.4	22.6	16.2
	파일 송수신 (국고금 수납)	2.4	2.8	17.4
	(국세 환급)	2.1	2.4	16.4
		0.3	0.4	23.1
	합계	21.8	25.4	16.3

자료: 한국은행

국공채 거래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고 국공채를 매매 또는 대차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정책과 관련해 국고채권과 재정증권 발행 사무를 취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입찰, 증권·대금결제, 증권예탁, 원리금 상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은 금융망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결제시스템을 연계한 '한국은행 증권시스템(BOK-Securities)'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2022년 중 한국은행 증권시스템을 통한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규모는 104.7조 원으로 전년대비 16.5% 감소했고, 상환규모는 132.3조 원으로 전년대비 8.3% 감소했다.

통화안정증권 발행 및 상환(액면금액 기준)

(조 원, %)

	2019	2020	2021	2022	증감률
발행	142.1	144.1	125.4	104.7	-16.5
상환	149.7	148.9	144.3	132.3	-8.3

자료: 한국은행

반면 한국은행의 증권매매규모는 단기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등으로 전년대비 38.2% 증가한 1,269.1조 원을 기록했다.

1)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구축된 재정정보시스템으로 예산편성·집행·회계결산·성과관리 등 재정활동의 전 과정이 동 시스템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

증권매매 및 증권대차(액면금액 기준)

(조 원, %)

		2019	2020	2021	2022	증감률
증권 매매	RP 매입	11.5	42.3	4.0	26.8	570.8
	RP 매각	536.2	662.5	908.6	1,235.3	36.0
	단순 매입	1.3	11.0	6.0	7.0	16.7
	계	549.0	715.8	918.6	1,269.1	38.2
증권대차(차입)		-	-	-	(7.0)	-

자료: 한국은행

한편, 국고채권 발행규모는 168.6조 원으로 전년대비 6.6% 감소했으며 상환규모는 74.8조 원으로 전년대비 17.6% 증가했다. 재정증권 발행규모는 16.3조 원으로 전년대비 43.7% 감소했다.

국고채권, 재정증권 발행 및 상환(액면금액 기준)

(조 원, %)

		2019	2020	2021	2022	증감률
국고 채권	발행	101.7	174.5	180.5	168.6	-6.6
	상환	57.2	59.2	63.6	74.8	17.6
재정 증권	발행	48.7	45.3	28.9	16.3	-43.7
	상환	48.7	45.3	28.9	16.3	-43.7

자료: 한국은행

한국은행 대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원화대출금 잔액은 2022년말 기준 41.0조 원으로 전년 말 대비 0.7조 원(+1.7%) 증가했다.

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출금 잔액¹⁾

(기말 기준, 조 원, %)

	2019	2020	2021	2022	증감률
금융중개지원대출	15.6	32.5	37.8	39.3	3.7
회사채·CP 매입기구 (SPV ²⁾)에 대한 대출	-	1.8	2.5	1.7	-29.4
합계	15.6	34.3	40.3	41.0	1.7

주: 1) 대정부대출금 제외

2) 기업유동성지원기구 유한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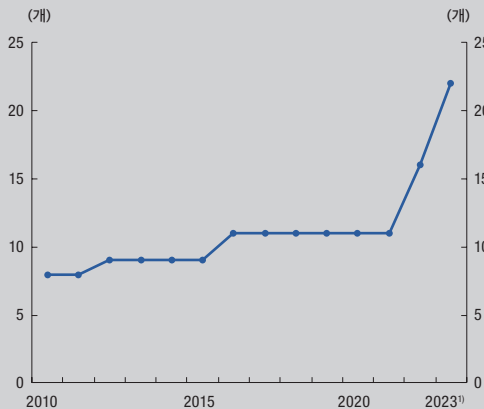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참고 II-2.

최근 보험회사의 한은금융망 신규 가입 증가

2022년 11월 이후 보험회사의 한은금융망 신규 가입이 크게 늘어났다. 한은금융망 가입 보험회사 수는 2021년 말 11개에서 2023년 1월 말 22개로 배증했다. 2016년 2월 일부 보험회사의 한은금융망 신규 가입 이후 2022년 11월 이전까지 보험회사의 한은금융망 신규 가입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최근 보험회사의 한은금융망 가입 급증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은금융망 참가 보험회사 수 추이(연말 기준)



주: 1) 2023년 1월 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보험회사의 한은금융망 가입 급증은 2022년 11월 보험회사에 대한 RP 매도¹⁾ 허용에 주로 기인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입 감소, 보험환급금 증가 등에 따른 유동성 상황 악화에 대응해 보험회사에 RP 매도를 통한 자금 차입을 허용했다.²⁾ 이에 보험회사들은 RP 매도에 따른 자금결제를 한은금융망 증권대금동시결제(DvP)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기 위해 한은금융망에 신규 가입했다.

한편 그동안 국내 보험회사의 한은금융망 가입은 채권 매매 및 RP 매입에 따른 증권대금동시결제 등 자금결제 수요가 상대적으로 큰 일부 대형 보험회사들에 한정되어 왔다. 한은금융망에 가입하지 않은 보험회사들의 경우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해 증권거래 등에 따른 자금결제를 처리했다.

보험회사의 한은금융망 참가 확대로 보험회사의 채권 매매 및 RP 거래에 따른 자금결제를 한은금융망 증권대금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결제리스크³⁾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보험회사는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에 비해 한은금융망 이용 건수가 적어 운영리스크 관리에 소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에 신규 가입한 보험회사들에 대해 운영리스크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필요 시 개선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⁴⁾

- 1) 경제적 실질의 측면에서 RP 매도는 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자금의 차입으로 볼 수 있다.
- 2)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보험회사가 RP 매도 및 사채 발행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유를 재무건전성 기준 및 적정 유동성 유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11월 보험업권의 유동성 상황 악화가 RP 매도를 통한 자금 조달 사유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발표했다.
- 3) 증권의 인도와 거래 대금의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결제를 먼저 이행하는 쪽이 거래상대방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리스크를 부담하게 된다.
- 4)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신규 참가기관에 대해 운영리스크 관리 등 참가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동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6개월 이내에 한은금융망 탈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에 대해 매년 1월 참가기준 충족 여부를 사후점검해 기준 충족 요구, 탈퇴 권유, 가입약정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참고 II-3.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 동향

어음·수표

2022년 중 어음·수표 이용규모(일평균)는 전년에 비해 건수 기준으로 13.2%, 금액 기준으로 11.8% 감소했다. 이는 2021년 중 공모주 청약 증거금의 대규모 유입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전자어음 발행이 증가한 데 따른 기저 효과에 주로 기인한다.¹⁾

어음·수표 이용규모¹⁾(일평균)

(천 건, 십억 원, %)

	2020	2021	2022	증감률	
건수	자기앞수표	295	259	224	-13.5
	정액권	255	223	186	-16.7
	(10만원권)	170	145	114	-21.6
	비정액권	39	36	38	7.2
	어음 등 ²⁾	11	10	9	-9.1
	전자어음	7.0	6.5	6.0	-7.8
	기타증서 ³⁾	1.6	1.6	1.6	0.6
	합계	308	271	235	-13.2
금액	자기앞수표	1,346	1,206	1,244	3.1
	정액권	102	92	83	-9.9
	(10만원권)	17	14	11	-21.6
	비정액권	1,244	1,114	1,161	4.2
	어음 등 ²⁾	14,124	15,008	12,717	-15.3
	전자어음	2,283	3,886	2,133	-45.1
	기타증서 ³⁾	2,769	2,686	2,701	0.6
	합계	18,240	18,900	16,662	-11.8

주: 1) 어음교환시스템을 통한 교환제시 금액, 청구제시 금액 및 전자어음 포함

2) 약속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 환어음, 전자어음 포함

3) 우편환증서, 유가증권원리금영수증 등

자료: 금융결제원

계좌이체

2022년 중 계좌이체 규모(일평균, 타행이체, 한은 금융망 제외)는 전년에 비해 건수 기준으로 11.4%, 금액 기준으로 5.3% 증가했다. 이는 인터넷뱅킹, 펌뱅킹 등을 이용한 비대면 전자방식 자금이체가 늘어 전자금융공동망 이용 규모가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

계좌이체 이용규모(일평균)

(천 건, 십억 원, %)

	2020	2021	2022	증감률	
건수	입금이체 ¹⁾	18,388	21,363	23,707	11.0
	전자금융공동망 ²⁾	16,114	19,041	21,333	12.0
	(인터넷뱅킹 ³⁾)	8,980	10,934	12,132	11.0
	(펌뱅킹 ⁴⁾)	6,146	7,077	8,205	15.9
	타행환공동망	273	254	238	-6.4
	출금이체	8,768	10,604	11,896	12.2
합계	27,156	31,967	35,604	11.4	
금액	입금이체 ¹⁾	71,753	85,656	89,799	4.8
	전자금융공동망 ²⁾	65,261	78,757	83,473	6.0
	(인터넷뱅킹 ³⁾)	29,663	37,407	38,293	2.4
	(펌뱅킹 ⁴⁾)	25,606	30,364	33,793	11.3
	타행환공동망	5,191	5,504	4,885	-11.3
	출금이체	1,049	1,496	1,988	32.9
합계	72,801	87,152	91,787	5.3	

주: 1) 한은금융망 계좌이체 제외

2) 타행이체 기준

3) 모바일뱅킹 포함

4) 금융기관이 기업에게 제공하는 기업용 금융거래시스템

자료: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지급카드

2022년 중 지급카드 이용규모는 소비회복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건수 기준으로 9.8%, 금액 기준으로 12.3% 증가했다.

1) 금융투자회사는 한국증권금융에 예치된 공모주 청약증거금을 활용하기 위해 전자어음을 발행해 이를 담보로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다.

지급카드 종류별로 보면, 신용카드의 경우 건수 및 금액 기준으로 전년보다 각각 10.4%, 12.9% 증가했고, 체크카드의 경우 건수 및 금액 기준으로 각각 8.7%, 9.6% 증가했다. 선불카드는 전년대비 건수 기준으로 12.1%, 금액 기준으로 15.1% 증가했다.

지급카드 이용규모(일평균)¹⁾

(천 건, 십억 원, %)

		2020	2021	2022	증감률
건수	신용카드	39,211	42,044	46,400	10.4
	체크카드	23,187	24,163	26,271	8.7
	선불카드	734	504	565	12.1
	기타 ²⁾	141.8	189.5	216.9	14.4
	합계	63,273	66,900	73,453	9.8
금액	신용카드	2,109	2,312	2,611	12.9
	체크카드	540	581	637	9.6
	선불카드	17.0	12.6	14.5	15.1
	기타 ²⁾	2.3	2.8	3.3	14.6
	합계	2,669	2,909	3,266	12.3

주: 1) 개인 및 법인(국내외 가맹점) 기준

2) 현금IC카드 및 직불카드

자료: 전업카드사 및 경영은행, 금융결제원

지급방식별로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외부활동 증가의 영향으로 대면지급 이용금액이 전년보다 12.0% 증가했다. 특히 대면지급 방식에서 실물카드 대신 모바일 기기 등을 결제단말기에 접촉해 지급하는 방식이 전년대비 46.9% 증가했다. 한편 비대면지급 이용금액도 온라인쇼핑몰 이용규모 증가세 지속²⁾ 등으로 전년대비 8.8% 증가했다.

지급카드¹⁾ 지급방식별 금액(일평균)²⁾

(십억 원, %)

	2020	2021	2022	증감률
대면지급	1,379	1,470	1,645	12.0
(실물카드 제시)	1,259	1,314	1,416	7.8
(모바일 기기 등 이용)	120	156	229	46.9
비대면지급	872	1,011	1,101	8.8
합계	2,251	2,481	2,746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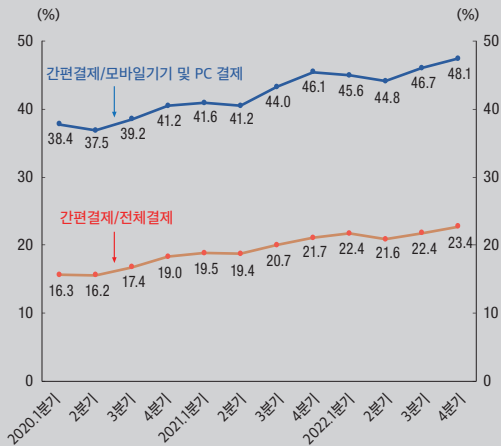
주: 1)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준

2) 개인 및 법인(국내 가맹점) 기준(잠정치)

자료: 전업카드사

한편 모바일·PC 등을 이용한 대금 지급 중 간편결제 서비스³⁾를 이용하는 비중은 편의성 선호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카드기반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비중¹⁾²⁾



주: 1)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준

2) 개인 및 법인(국내 가맹점) 기준(잠정치)

자료: 전업카드사

2) 온라인쇼핑몰 이용금액(일평균, 억 원) : 2019년 3,742 → 2020년 4,325 → 2021년 5,212 → 2022년 5,750(잠정치)

3) 지급카드 등의 중요 정보를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에 미리 등록해두고 거래 시 간편인증수단(예: 비밀번호, 지문·얼굴 등 생체정보)을 이용해 재화·서비스 구매 대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